광주 도시철도2호선 공사 어떻게 진행되나

1단계 시청~광주역 2023년 개통 2·3단계 순차 착공 2025년 개통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일부 구간 우선 착공은 오는 2025년 개통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의 차량기지 설치 반발과 발주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의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애초 목표였던 '2018년 내 착공' 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았 다.

반면 광주지역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 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높고,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 안 에 마쳐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광주시가 19일 우선 착공 방침을 밝힌 상무역~월드컵경기장 일부 구간(4.5km) 은 차량 혼잡지역인 탓에 광주도시철도 2 호선 전 구간 중 가장 공사가 힘든 지역으 로 꼽힌다.

시는 총사업비 2조579억원을 들여 1단 계(17.06km·2023년 개통) 시청~상무역~ 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 광주역~조선대~광주역(정거장 20개소· 차량기지 1개소), 2단계(20km·2024년 개 통)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 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 (정거장 18개소), 3단계(4.84km·2025년 개 통) 백운광장~진월~효천역(정거장 6개 소)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발표된 우선 착공 구간은 1단계 구간 중 상무역 인근에서 월드컵경기장 일 부 구간이며 공사비는 1500억원이다. 평 균 심도는 4.3m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우선 착공 구간 에서 공사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다른 구간

■2호선 1단계 우선착공구간 (상무역~월드컵경기장)



의 공사를 진행, 오는 2023년에 1단계 구 간을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내년 상반기 착 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설계는 완료된 상 태며, 광주시는 최근 차량시스템을 선정 한 뒤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실시설계 용역은 오는 2019 년 1월 완료되기 때문에 광주시는 우선 착 공 구간의 실시설계를 앞당겨 마칠 방침이 다. 우선 착공 구간 실시설계의 내년 상반 기 이전 완료 여부에 따라 '광주도시철도 2 호선의 첫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

또 광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광주도시 철도 2호선 대신 '2025년까지 시내버스 완 전공영제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요구 하고 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주의 위기 부른 정치편향

공수처,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2 권력편향과 부패의 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은 권력만 바라보는 이른바 일부 '정치 검 사'와 '부패 검사'의 과거 행태가 주원인 으로 꼽힌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BBK사 건,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사찰 등 대 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 사건에는 대 부분 정치 검찰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면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 4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 근혜 정부 최악의 정치검찰 사건 15선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우병우 사건 ▲남북정상회 담 회의록 유출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업청탁 사 건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 법 자급지원 사건 ▲국정원 심리전단 여 직원 셀프감금 사건 등으로, 검찰의 이중 적인 태도로 사회논란이 야기됐던 사건

이러한 사건 대부분은 수사와 재판 과 정을 통해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사건관 계인을 입막음하고, 정권의 독주를 강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권이 행사된 것 들이다.

특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대부분은 요직으로 영전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이 같은 정치적 보상체계는 검찰을 더욱 정 치적으로 몰아갔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정치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만 존 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수많은 정치 검찰 사건이 있었다. 가장 대 표적인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 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사 건, 국정원 등 대선개입 사건, 민간인 사 찰 사건 등이다.

BBK는 최근 사건 관계자인 김경준의 출소와 폭로로 다시 불이 붙고 있으며, 국 정원 댓글부대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발한 활동으로 당시 은폐됐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논란은 아직까지 국민의 공분 을 사고있다.

실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광범위 한 수사에 나서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 로부터 노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BBK 사건·국정원 댓글 등 큰 사건 마다 정치검찰 관여 봐주기 수사 뒤 요직 영전 정치적 보상체계로 악순환

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하지 만, 1기 수사진은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 사이의 금전거래를 사적 금융거래 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이인규 중 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 1과장으로 새로 꾸려진 2기 수사진이 새 롭게 출범하면서 수사 방향은 급선회했

이들은 수개월에 걸친 저인망식의 장 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하루가 멀다하 고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의혹이 언론을 통 해 흘러나왔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검찰 의 행태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까지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서거했다.

이 같은 정치 검찰의 수사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청와대와 정치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를 좌지우지해온 검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제 식구

감싸기'다.

검찰은 일부이긴 하지만 수사권과 기 소권, 그리고 공소유지권을 독점하고 있 다는 특권적 권한을 활용해 현직 검사 또 는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부패나 비 위사건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 수사를 왜 곡·방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검사들에 대한 부패나 비위사건을 축 소·무마한 사건은 멀게는 김학의 전 법무 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부터 부장검사 친 형 세무서장 향응 · 접대 사건 등이 대표적 이다. 최근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서울중앙지검장 등 돈봉투 만찬 사건 등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에 먼저 착수한 경우,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 하고, 검찰이 직접 처리하고자 했다는 공 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다시는 '제 식구 감싸 기식' 행태 등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공수처 신설' 등 제도적인 개혁 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권력자, 정치인, 고위공직자와 검사 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정치적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독립 된 제3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 의 시대적 요구로 떠오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울 중대위험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 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 (현지시간) 여러 대북 군사 옵션 가운데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옵 션도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과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에서 기자들에게 "군사 옵션은 많이 있다. 동맹국들과 협력해 우리의 이익과 동맹국 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 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 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 션이 있느냐'고 묻자 매티스 장관은 "그렇 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 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발언이 군사 작

전을 의미하는 '동적인'(kinetic)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물음에 도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다"며 추가 질 문을 차단했다.

비록 구체적 방안은 함구했지만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 옵션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하기는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보복으로 이어져 한국 내 수많은 민간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전통적으로 견지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피해에 대한 부담 없이 선택 가 능한 옵션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

/연합뉴스

◆ 출발일: 2017년 9월 30일(토) ~ 2018년 3월 30일(금) ◆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19일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송두환 위원장과 문무일 검찰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이 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국민의 바라는 검 찰상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19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위 위촉식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고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 행하고, 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사항 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두환(68·연수원 12기) 위원장 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새로운 정 부가 내건 기치이기도 하고, 한 걸음 나아 가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이제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해 개혁에 대한 의욕과 의지를 갖추고 있 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위는 앞으로 1~2주 단위로 회 의를 열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 련해 문 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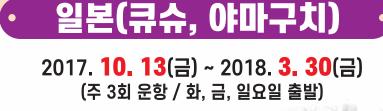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 무안 ↔ 기타큐슈 전세기 운항

9. 30(토) ~ 10. 9(월) 추석연휴 매일!!

효사랑 가족 3대 한정특가!!!

10/1(일), 10/2(월), 10/3(화), 10/6(금)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

• 불포함사항: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 최소 4인 이상 예약 가능

9/30(토) ~10/9(월)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품격] 북큐슈 1,048,000원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품격] 야마구치 1,098,000원부터

),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활종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세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7. **11. 17**(금) ~ 2018. **5. 18**(금)

한요일출발출/도착시간무안(08:05) → 다냥(10:40), 다냥(14:40) → 무안(20:80) 금요일출발출/도착시간무인(21:35)→ □남(00:10), □남(01:05)→무안(06:55)

[실속] 다낭 · 호이안 · 1일 자유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호이안 · 핫스프링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탑 · 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999,000원~ / 3박5일(금) 1,049,000원~

[노팁 - 노옵션] 핫스프링오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949,000원~/(3박5일(금) 1,049,000원~ ※ 포함사항은 상품에 따라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